

光州日報 연중 캠페인  
**함께 할수록 커지는 문화 나눔**  
**Hand in Hand**

<제2부> 문화 향기 현장속으로  
 (23) 광주 '문화 행동 S#ARP'

# “문화 반올림” ... 함께 하면 꿈은 커집니다”

동물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는 날. 언제나 운동을 잘한다고 생각하던 토끼와 거북이는 절인 3중 경기에 출전했어요. 가장 먼저 시작된 경기는 수영이었죠. 경기 결과 토끼가 이기자 경기에 진 거북이는 요술을 부리는 돌리를 찾아갔어요. 토끼를 이기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죠. 돌리의 요술 덕분에 두번째 경기에서 거북이는 토끼를 이겼지만 많은 동물들의 항의를 받았어요...



'문화 행동 S#ARP'이 진행되는 '멀티미디어 동화만들기-동화의 재구성'은 한국 문화예술평화진흥원의 지원으로 올 한 해동안 계속된다.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동화 '토끼와 거북이' 전래 다른 이야기로 변신했다. 아이들의 기발한 상상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광주무지개지역아동센터 등 지역 9개 아동센터 어린이들은 '문화 행동 S#ARP'(대표 정민기)가 진행한 '멀티미디어 동화만들기-동화의 재구성'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동화를 새롭게 변신했다. 아이들은 직접 그림을 그리고, 대본을 쓰고 내레이션을 해 컴퓨터 상에서 볼 수 있는 '멀티미디어 동화'를 만들어냈다.

10월부터는 이주여성과 자녀들이 함께 엄마 나라 동화를 소재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흥사단의 청소년 문화 사업 관련 사회적 일자리 프로젝트에서 출발한 '문화행동 S#ARP'은 지난해말 비영리 청소년단체로 독립, 소외된 아동·청소년들과 문화로 소통하며 풀뿌리 지역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문화 행동 S#ARP'은 다양한 문화적 움직임을 통해 문화 복지를 실현한다는 꿈을 꾸는 모임이다. 단체 이름 'S#ARP'은 소소한 문화적 경험들이 켜켜이 쌓여 현재 보다 우리 삶의 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가치한 변화를 꿈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를 통해 문화 복지가 꽃피기를 기대해 보는 것이다. 모임을 꾸려가고 있는 이들은 사회복지, 그중에서도 청소년 복지를 전공한 이들도.

'문화 행동 S#ARP'은 모임 결성 후 다양한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흥사단과 함께 진행하던 시절에는 농성문화의 집에 주로 터를 잡고, 지역 청소년들 뿐 아니라 지역민과 함께 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리어가 놀이터'는 자연물을 이용한 미술 작업과 다양한 놀이를 매개로 진행한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이었다.

또 매달 한차례씩 농성광장에 돛자리를 펼치고 '마실' 나온 주민들과 함께 영화도 보고, 공연도 감상하는 '농성동 돛자리 축제'는 지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 소외된 아동·청소년들과 문화소통 풀뿌리 지역문화 일기 문화 복지 실현 꿈...청소년 위한 '1318 해피존' 등 운영



'문화 행동 S#ARP'은 매월 한 차례 광주 남구 문화회관에서 청소년과 지역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유쾌한 반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스스로 디자인하는 삶'에 초점을 맞춰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아무래도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경우 일반 가정 아이들보다 빨리 독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도.

대표적인 게 의식주와 연관된 문화 체험 프로그램. 직접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보고, 자신의 방을 꾸미는 목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아이들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남구청소년문화회관 주관 단체로 참여, '유쾌한 반란'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중인 '문화 행동 S#ARP'은

'공연 중심 사업'을 지양한다. 사실, 행사를 그렇듯하게 꾸미는 데 있어 몇개 팀을 초청, 공연을 하는 게 가장 쉽지만 이럴 경우 주인공인 일반 청소년들은 방관자가 되고 만다. 그래서 공연 등을 부대행사로 돌리고, 재활용품을 활용해 아트 작품을 만들어보는 '녹색 공방'을 운영하는 등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 애쓰는 중이다.

'문화 행동 S#ARP'은 지난해말부터 또 다른 시도를 하고 있다.

'1318 해피존'은 SK와 부스리기 사랑나눔회가 손잡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이 대부분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것을 감안,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문화 행동 S#ARP'은 공모에 당선돼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318 해피존'은 전국에 30여개가 운영중이며 전남지역에서는 곡성의 '1318 해피존-웃음滿堂', 강진의 '1318 해피존-푸른누리'가 운영중이다.

'해피존 1318-인디고 아이들'은 청소년들의 컴퓨터 공부방이자 놀이방이다. 청소년들은 누구나 무료로 인디고 아이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언제나 열려 있다.

'문화 행동 S#ARP'은 또 학교로 들어가 청소년들과 문화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업도 전개중이다. 10월께 하남중과 문화중에서 열릴 '아시아 요리교실'이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이주여성을 강사로 초빙해 해당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요리를 직접 만들어보도록 할 계획이다.

정민기 대표는 "현재 '문화 행동 S#ARP'을 포함한 지역 청소년 단체들의 고민은 정작 프로그램이 있어도 청소년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점이다"고 밝히고 "풀뿌리 문화단체들에 대한 지원도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062-367-131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연극 보러 오세요

광주시연극협회 소의 계층 등 초청

광주시 연극협회(회장 박규상)가 문화나눔에 나선다.

연극협회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는 2008 평화연극제에 문화 소의 계층을 초청한다.

'난리통에 웃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극제에는 6·25 전쟁, 광주민중항쟁 등 역사의 소용돌이와 IMF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이 관객들을 만난다.

공모 과정을 통해 작품을 선정했으며 '웃음'이 함께 하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쉽게 연극에 빠져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극제 참가작은 해외 초청 공연 등으로 이름을 알린 서울 극단 '초인'의 '선녀와 나무꾼'을 비롯해 역시 서울 극단인 '노는 이'의 '그 때 그날'과 (주)쇼맨라이프의 뮤지컬 '프로프츠', 전주 극단 '판'의 '일상다반사', 광주극단 Y의 통일을 주제로 한 풍자극 '통일 익스프레스' 등 모두 5편이다.

초청 대상은 복지관, 장애인, 새터민, 군인, 생산직 근로자 등이며 접수 마감은 4일까지다. 문의 062-523-7259, 011-615-948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후원:



**무안 - 광주(황산, 구화산) 무안공항 직항 전세기**  
**무안 - 장사(장가게, 원가게) 무안공항 직항 전세기**

\* 공항 주차장 무료이용  
 \* 개인 차에의 만족도를 주는 광주MBC문화여행 상품입니다(www.kjmbc.co.kr)  
**"기존의 패키지 상품과 허반이 다릅니다"**

| 무안-광주(황산, 구화산) 직항 전세기   | 무안-장사(장가게, 원가게) 직항 전세기  |
|---|---|
| <p>1인당 1박 2일 4인실 1인당 430,000 / 4인실 5인 780,000</p> <p>1인당 1박 2일 4인실 1인당 430,000 / 4인실 5인 780,000</p> <p>1인당 1박 2일 4인실 1인당 430,000 / 4인실 5인 780,000</p> | <p>1인당 1박 2일 4인실 1인당 430,000 / 4인실 5인 780,000</p> <p>1인당 1박 2일 4인실 1인당 430,000 / 4인실 5인 780,000</p> <p>1인당 1박 2일 4인실 1인당 430,000 / 4인실 5인 780,000</p> |

다들 내가서 김씨에게 "광주MBC 문화여행" - 을 차갑기도

**광주MBC문화여행** 광주/전남 북 유망여행사 ☎ 문의 062-226-6070